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7화 : 무장현(茂長)에 뜨는 해			
<p>대장간을 방불케 하는 풍경 속 타오르는 햇불이 어스름을 밀어내고 사방을 밝히고 있었다. 그 안에 머무는 대여섯 명의 장정은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내느라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p> <p>누구하나 꾸물거릴 틈도 없이 작업에 몰두 중이었다.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나는 3월의 새벽임에도 흐르는 땀방울은 한여름처럼 송골송골했다.</p> <p>한쪽이 나무를 패는 동안 한쪽은 나무를 작게 자르고, 이것을 이어받은 뒷사람이 말발굽에 박힌 편자 모양으로 다듬으면 그 옆에서는 2cm의 테두리를 남겨두고 속은 잘라내는 작업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어받은 자는 총 손잡이와 연결할 이음새를 만들었다.</p> <p>이는 총신의 무게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현세가 고안해 낸 방법이었다.</p> <p>그는 새로이 부착한 개머리판을 어깨부근에 대고 조준각을 맞춰보다가 인상을 팍 썼다</p> <p>“아재, 가늠자랑 가늠쇠가 딱 중간으로 오게 붙여야 해요. 이건 수평이 맞지 않잖아?”</p> <p>“아따 그놈 참, 간간허게도 구네! 너는 시방 이 손바닥이 걸레짝이 된 건 안보이냐?”</p> <p>현세는 목공 노릇을 하고 있는 갑수아재의 손바닥을 흘긋 내려다보았다. 과연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고 터져나간 게 대여섯 개는 넘어 보였다.</p> <p>그리 따지면 나는! 현세도 피부가 벗겨져 진물이 나기는 매한가지였다.</p> <p>“아재, 정부랑 싸워서 지면 가족이 벗겨질지도 몰라요. 이깟 손바닥이 대수예요?”</p> <p>이곳 찐 조선의 법대로라면 그 정도의 고통은 주고도 남을 것 같았다. 혹은 신체 어딘가가 꿰뚫려 야산에 버려질지도 몰랐다. 안 그래도 힘든데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p> <p>그건 앞에 있는 아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그들은 마른침을 삼키며 손바닥을 접었다, 펴보였다.</p>			

“농담이여. 시원하니 좋구먼, 니들은 안 그려?”

“아, 꾸물대지 말고 빨리 개머린지 소머린지나 붙여! 해뜨기 전까지는 다 해 놔야지, 암!”

집회 당일 새벽까지도 현세는 몇몇의 동학군들과 조총을 개조하는 데 주력했다. 자신이 아는 위정자들이라면 필시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별 짓을 다 할 게 분명했다.

그는 연희로부터 받은 보리밥을 뭉쳐 만든 주먹밥을 한입 베어 물고 총구를 살펴본 후 다시 조준을 해보았다. 현세의 눈이 가늘어졌다, 커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저격수 몇 명만 잘 해내도 승산이 있어. 전부다 조총을 들고 내려오진 않을 테니까. 문제는 육탄전이다... 낮이랑 곡괭이로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건 봉 형이랑 상의를 해봐야겠어.’

현세는 직감했다. 이번 무장현 집회를 시작으로 동학군의 위세가 주변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임을.

군중이란 게 대개 그렇듯이 숫자가 많아질수록 대담해지고, 나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력은 지축을 흔들 만큼 커다란 세력이 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는 현세도 동학군이 나라를 뒤집고 평등한 세상을 도래시켰다는 사실은 들어 보지 못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가 보아왔던 수많은 드라마 속 한 페이지 속에 동학군의 승리가 담겨있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아.’

현세는 마음이 무거웠다. 저 하나만으로 지고한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이미 정해진 운명을 작고 작은 농민의 아들이 새로 쓸 수 있을까?

한편, 현세의 표정이 무척 어둡다는 것을 느낀 동학군 하나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중얼댔다.

“또 수평이 안 맞는겨? 저놈 낮짝 썩은 것 좀 봐. 시방 너는 나이가 몇 갠데 이리 되바라졌어야? 아재들이 이틀 밤낮을 꼬박 현세 너 말대로 했잖여. 뭐시 문제여?”

구수한 원망소리에 현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판사판 덤벼보기로 해 놓고 약해빠진 생각이라니, 저 답지 않았다.

현세는 금방 낮빛을 희색으로 뒤집으며 환하게 두 눈을 접었다.

“되바라지긴 누가요? 아재, 나중에 고맙다고 감자나 들고 오지 마셔. 고기, 나는 고기 아니면 취급 안 해.”

“고기는 미친놈. 먹고 죽으래도 없어, 이놈아!”

“또 모르잖아요. 저기 양반네들 창고라도 털 수 있을지.”

현세가 너스레를 떨자, 한참 나무를 다듬던 동학군들의 표정이 금세 밝아졌다. 머리가 돌든, 철증이 말처럼 귀신이 들렸든 이쪽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가릴 처지가 아닌지라.

게다가 현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어미가 죽었다고 미쳐 날뛰던 아이가 아니라, 갓 전장에서 돌아온 듯 원숙한 사내가 되어있었다.

하긴, 관군의 첩자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부터 예사 녀석은 아니라고 생각하던 차였다.

“성! 성님아!”

손바닥에 물집이 툭 터짐과 동시에 현종의 낭랑한 음성이 귓전을 때렸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까진 무슨 일인지 목소리가 무척 밝은 느낌이었다.

현세는 양 미간을 구기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쫄이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무슨 일 생겼어?”

“아니여, 연희 누나가 이거 갖다 주라고 해서 와 본겨. 자.”

아이의 조그만 단풍모양 손 위에는 내모난 도자기 병이 들려 있었다. 연희라는 말에 현세는 그것을 짹싸게 받아들며 다급하게 물었다.

“연희씨가? 이게 뭔데?”

“손바닥이 많이 까졌을 거라면서 전해주라 그랬어. 아니 근디, 형. 어디 아픈겨? 낫빠대기가 시뻔건디?”

현세는 도끼눈을 뜨고 어린 되바라진 녀석을 흘겼다.

“빨강긴 뭐가 빨개. 형 일하는 거 안 보이냐? 너 자꾸 방해하면 토르 망치 안 구해준다?”

“치사혀..... 드러, 진짜.”

현종은 두 볼을 짱구처럼 부풀리며 다 들리도록 구시렁댔다. 그 모습이 하도 웃겨서

뒤에 있던 목공 아재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서 웃지 않는 사람은 현세뿐이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현세는 주먹을 들어 올리며 나직이 말했다.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쪼꼬만 게 보자보자 하니까.”

“아, 아녀! 주먹밥 모자라든 종이 불러!”

조그만 녀석이 어찌나 재빠른지, 현중은 벌써 저만치 멀어져갔다. 현세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며 손에 쥐고 있던 약병을 내려다보았다.

반질반질한 상아빛 도자기가 꼭 연희의 희고 고운 얼굴과 닮아보였다. 어찌 된 노릇인지 그녀는 처남과는 달리 이쪽 사투리를 쓰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그럴 만도 했다. 헤민서도 서울, 그러니까 한양에 있었으니까.

여자들도 참 대단한 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상경하면 말투를 쉽게 고치는 것 같았다. 그에 비해 현세의 대학 동기들과 특공대 동료들은 썩 그렇지... 못했다. 지역의 대표답게 그들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할 거 없이 참으로 다양한 지역말투를 구사하곤 했다.

현세가 멍하니 서있자, 목공 아재 한명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 처자를 맘에 둔 게로구먼? 그렇지?”

현세의 어깨가 갓 물에서 건져낸 고기처럼 펄떡 튀었다. 은근히 혹 치고 들어오는 아재의 말투에 소름이 다 끼쳤다. 흡사 제 속을 긁어내고 내장까지 다 보여준 것만 같아 곧바로 말대꾸가 튀어나가지 않을 정도였다.

“뭐, 무슨...”

“아따, 좋을 때여. 사실 손 처자가 기가 막히게 곱긴 혀. 그 오라방은 쪼까 무서워도, 글치?”

그만 뒤! TMI! Too Much Information! 현세는 머리까지 끓다 못해 뚜껑이 터져서 넘칠 것만 같았다.

귓바퀴까지 전부 새빨강게 달아오른 현세의 모습에 개머리판을 달던 아재들 전부 웃음을 터뜨렸다.

“얼굴에 다 써있구먼 뭘 부끄러워 하고 그러? 자고로 사내는 박력이 중요한 거여! 박력! 따라혀 봐, 박력!”

박력 같은 소리하네! 현세는 한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등을 뒹 돌렸다. 스스로는 그래도 잘 된 거라며 위로를 멈추지 않았다.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이런 분위기가 훨씬 나을 테니까.

“이상한 소리하지마시고 약이나 바르시죠.”

“아이고, 예, 나리. 명 받잡겠습니다요!”

조총보관소에 크고 작은 웃음꽃이 활짝 폈다.

그리고 어느덧 새벽의 어슴푸레함이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조총 점검을 마친 현세는 뻗뻗해진 팔과 다리를 쭉 뻗고 기지개를 켜다. 어쩐지 감개가 무량했다.

살다 살다 총기 개조를 해보기는 또 처음이었지만,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토록 삶을 갈망하는 자신이 신기하게 여겨졌다.

대한민국에 살던 이준은 그다지 삶에 집착하지 않았다.

일례로 작전 중에 죽어나간 대원이나 동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그게 차라리 자신이 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준에게는 삶을 이끌어갈 보람을 안겨줄 대상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 그로써는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알 턱이 없었다. 그나마 애정을 준 대상이 있다면, 토르 정도 일까.

순탄치 않았던 유년시절은 그의 방어기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빛만 잔뜩 지워주고 종적을 감춘 아버지, 그 빛을 고스란히 떠안고 하나뿐인 아들을 건사하다 죽어버린 엄마. 너 같은 건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온갖 멸시를 일삼던 친척들까지.

몸이 점점 자라나면서 제 밥벌이는 충분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었지만, 굶을 대로 굶아버린 속은 어린 시절 이준 그대로였다.

의미 없이 표류하던 이준의 배가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건지는 몰라도 그는 이곳이, 무장현이, 그리고 동학군이 좋았다. 뭐, 대단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저도 배가고픈 주제에 감자를 불쑥 내미는 현종의 따스한 손길에 비로소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다.

현세는 남은 약을 손수 목공 아재들에게 발라주면서 나직이 말했다.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늘어나면 정부에서도 내려올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들 역시 현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 않았다. 열여덟밖에 먹지 않은 놈이 세상 다 산 사람 같은 눈빛을 보내자, 동학군들의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속

으로는 주책이라고 나무랐지만 쉬이 제어가 되지 않았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들 중 누군가는 아내를 잃거나 아이를 잃었고, 혹은 늙은 부모를 잃었다.

“뭐,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 아들놈이 저기 하늘서 지켜보고 있는데, 뭐 시 걱정이여!”

뜨거운 눈물에 뒤덮인 미소가 이토록 애달플 수 있다.

현세는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찡하고 뜨거운 감각을 생생하게 느꼈다.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사람들조차 뜻을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너나 할 거 없이 빛나보였다.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썩어버린 등지 바깥으로 한 발짝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현세는 갑수 아재의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말했다.

“그래도 살아요. 살아야 좋은 것도 먹고, 살아야 좋은 세상도 보는 거야. 약속해요.”

바로 옆에서 눈물짓던 만석 아재가 소리쳤다.

“아따, 이놈! 교주님 탄신일에 무슨 재수 없는 소리여! 너나 죽지 마! 너나 잘 살어!”

현세는 제 팔뚝을 들어 불룩하게 솟은 근육을 강조하며 말했다.

“아재. 나 진짜 싸요. 별명이 인간 병기야. 내가 아재들 지켜 줄 테니까 그냥 내 뒤에 서있어요.”

무거웠던 분위기는 아침 햇살과 함께 사워어갔다.

현세는 햇무리가 뿌영게 비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봉 형의 말에 의하면, 고창과 정읍, 태인 등지까지 모여들어 백산으로 재집결 할 수순이라 했다.

‘그리 되면 연합부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겠지.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